

# 南 85명-北 94명 이산상봉 명단 교환

## 추석 상봉 추진보다 南 11명·北 6명 줄어 사망·건강악화 등 이유... 실무점검단 방북

남북은 이달 20~25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참석할 양측 상봉단 명단을 6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교환했다.

북측은 이날 오후 4시에 지난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 당시 통보한 100명 가운데 이번에 상봉에 참석하지 않을 5명의 북측 상봉단 명단을 통보했다. 이어 7일에는 북측 상봉자 1명의 우리측에 있는 가족이 개인적 사정으로 상봉 포기 의사를 밝혀 북측은 94명으로 조정됐다.

우리 정부도 이날 오후 10시10분께 지난해 명단에서 11명이 빠진 85명의 남측 상봉단 명단을 북측에 보냈다.

통일부 관계자는 "작년 상봉단 중에서 돌아가시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악화돼서 부

득이하게 참석을 못하게 된 인원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예초 남북은 이날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명단을 주고받을 계획이 없었지만, 북측이 자신들 명단을 건네주며 우리측 명단을 요구해 밤늦게 교환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오는 20~25일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가 한 단계 진전하게 됐다.

특히 북측이 불참자 명단을 통보한 시점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이산가족 상봉 합의 재고를 시사하며 한미합동군사연습 중지외 비방·중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이후다. 이는 북한이 이번 상봉 행사를 취소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일단 비전 짓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국방위 성명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행사를 예정대로 열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사용될 현지 시설을 점검할 우리측 실무점검단은 예정대로 7일 오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했다.

대한적십자사와 현대아산 관계자 및 협력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실무점검단 64명은 차량 27대에 나눠달고 이날 오전 8시50분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출발, 오전 9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금강산으로 향했다.

이들은 금강산 현지에서 상봉행사 세부 일정 등을 북한적십자사와 논의하고 상봉행사장으로 사용될 이산가족전화소와 상봉단 숙소인 금강산호텔 등에 대해 점검했다.

실무점검단을 이끌고 방북했다가 8일 돌아온 대한적십자사 박 과장은 "현지에 1m 정도의 눈이 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朴대통령 "북, 또 이산가족 가슴에 큰 상처 주면 안돼"

##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며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북한은 또다시 이산가족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면서 "옛그제 이산가족 상봉이 합의됐는데 합의 하루

만에 한미 합동훈련을 발미로 합의의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번 상봉을 잘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새 한반도로 나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았듯 남북한 관계는 좀 풀려간다고 싶으면 바로 어려운 위기가 닥치곤 했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핵개발과 경제개발 병진노선을 고수하고 있고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정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갑자기 평화공세를 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긴장을 늦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할 때까지 우리는 잠시도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하고 만약 도발을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남구 한문덕 의원 여성 의정활동 최우수상 광주시 강은미·홍인화, 여수 김유화 우수상

광주시의회 강은미·홍인화 의원과 남구의회 한문덕 의원,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 등 4명이 지난 8일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가 주관한 민선 5기 여성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 평가에서 광역과 기초의원 부문에서 각각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남구의회 한문덕 의원은 기초의원 부문에서 가로 환경미화요원 감독의 급무수수 감사와 이들의 '힘터' 마련을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은미 광주시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들의 보호 및 교육지원 사례로 광역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홍인화 광주시의원은 지방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정회 개최로 지방재정 및 인사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주제로 우수상을 받았다. 여수시의회 김유화 의원은 장애인 정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홍인화 강은미 한문덕 김유화

# 6·4 지방선거 현장

## 강은태 시장, 출판기념회 열지 않기로

강은태 시장 측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거칠 잦은 출판기념회에 따른 시민, 기업인들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이달 중 개최할 예정이었던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제시한 혁신안에는 출판기념회 투명화를 위해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을 선관위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수익공개 차원을 뛰어넘어 아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최근 자신의 정치철학, 민선 5기 성과와 숨은 뒷얘기 등을 담은 대담형식의 저서 '간절하게 담당하게 - 150만이 함께 꾸는 광주의 꿈'을 출간하고 이달 중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이용섭의원 시민 목소리 청취 '현장투어'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이용섭(광산) 의원은 9일 광주의 '5대 격정'(일자리·교육·주거·보육·노후)을 해결하기 위해 10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현장투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투어'는 10일 동구 산수동 '족방촌'에서 거주민들과 함께 정비사업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며, 12일에는 전남대에서 취업준비생들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유토론을 할 계획이다.

이어 13일에는 중·고등학교 학부모와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17일에는 광산구의 가정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보육에 대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18일에는 남구시니어클럽 공익사업단 현장에서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양형일 전 조선대총장 출판기념회



조선대 총장을 지낸 양형일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8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하이모빌딩 1층에서 자유로운 토론과 문화공원이 어우러진 색다른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에 구애없이 아무 때나 참여하는 '열린 북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임마찰 한인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양 예비후보는 "한 걸 잘못된 농사는 한 걸 피해에 그치지지만 한 걸 잘못된 교육은 2세들에게 평생동안 피해를 끼친다"며 "교사·학부모·학생·시민 등 지역사회가 교육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정희곤 시의회 교육의원 출판기념회

광주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의원이 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선적 교육예세이 '아이들이 길이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정 의원은 이 책에 30여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겪은 이야기와 전교조 광주지부장·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운동에 대한 열정,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의정활동을 담았다.

그는 "오늘의 교육은 어른 중심의 교육에서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이 책을 통해 광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교육수도 광주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가능한 내용들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윤장천 새정치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도종환 시인이 동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특히, 같은 전교조 출신으로 후보단일화 요구를 받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행사에 참석, "동지적 연대"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후보단일화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박표진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박표진 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 7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6·4지방선거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전 부교육감은 이날 후보등록을 한 뒤 "지난해 2월 명예퇴직 후 1년간 광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교육현장의 교사와 학부모,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며 "뜻을 같이하는 많은 분과 함께 교육을 통해 광주의 옛 명성을 되찾고, 글로벌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학생에게는 희망을 주는 광주교육, 교사에게는 보람을 주는 광주교육, 학부모에게는 감동을 주는 광주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교육예세이 '광주교육 새로운 청사진이 필요하다'를 출간한 박 전 부교육감은 오는 28일 광주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신광조 전 서구 부구청장 출판기념회

신광조 전 서구 부구청장은 지난 9일 서구문화센터에서 '위대한 변화는 작은 도전에서 시작된다.'-'아름다운 돈키호테'출판기념회를 상화리에 개최했다.

6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신 전 부구청장은 "지난 공직 생활 동안 남이 닦은 길을 가기보다는 새로운 길을 만들면서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썼다"며 "새로운 도전이 다시 위대한 변화의 물결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출간했다"고 출판의 이유를 밝혔다.

신 전 부구청장은 유년시절부터 공직시절 도전 이야기, 지역에 대한 고민과 미래구상을 이 책에 담았다.

해남이 고향인 신 전 부구청장은 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광주시 기획관, 도시교통국장, 도시마케팅본부장, 서구 부구청장, 환경생태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역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매매"

**15평(실 9평) 1세대**

- 15층, 무등산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감정가 4,500만원
- 급매가 3,500만원

**29평(실 18평) 3세대**

- 10/12/13층, 하천 쪽, 주거겸 사무실
- 시세/분양가 1억원
- 급매가 6,500만원

**38평(실 22평) 1세대**

- 2층, 하천 쪽, 사무실 전용
- 시세/감정가 1억 5,000만원
- 급매가 1억원

**53평(실 33평) 1세대**

- 13층, 양동/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2억원
- 급매가 1억 5000만원

**77평(실 44평) 1세대**

- 20층, 최상층, 전망 좋음, 사무실 전용, 올수리
- 시세/분양가 3억원
- 급매가 2억 5,000만원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문의 010-4667-9300**

- 관리비 평당 7,000원, 대형주차장 완비
- 개별 냉/난방 시설

## 경매투자

- ▶ 경매 특수비법
-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 특수물건만 취급
-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 주1회, 3개월 완성
- ▶ 교육비, 1200만원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